월급쟁이의 안정이냐 창업도전이냐

(사무엘하 12:24~31)

24.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26.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27.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8.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29.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30.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31.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32.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써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월급쟁이의 안정이냐 창업도전이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월급쟁이의 안정이냐 창업도전이냐'

월급쟁이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월급쟁이가 되고 싶어 하는 소원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정작 월급쟁이가 되어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은 고맙지만 고정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하다보면 또 다음 월급날을 동경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은 지긋지긋한 현실을 한 달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과 같은 것입니다. 남는 것도 없지만 그나마 월급날은 기분이나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재미로 한 달 동안의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생활이 몇 달 몇 년씩 되다보면 월급쟁이의 일상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자기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무한궤도에 갇힌 것 같은 회의가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강력한 당근이 승진입니다.

승진은 월급쟁이들을 직장에 묶어두고 열정을 쏟게 하는 탁월한 수단입니다. 일단 월급을 받

는 회사는 안정된 울타리이지만 그 안에만 있다 보면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하게 되면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삶이 곪고 기쁨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정된 울타리를 걷어치울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승진을 통하여 안주하지 않고 성취욕을 불태울 수 있고 진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승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지만 어떠한 월급이나 승진도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안정을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였던 한국 조선업의 상황이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남에게 월급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안정은 없다. 내 승진과 진보와 운명이 타인에게서 결정되는 동안에는 결코 참된 안정이 주어질 수 없으므로 밥벌이의 주체가 되라'고 합니다. 즉 '창업의 도전 없이는 밥벌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밥벌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한 진정한 안정은 없다'는 것인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취직을 못하고 있을 때에는 부실하더라도 안정된 급여가 나오는 월급쟁이가 소원입니다. 그러나 정작 월급쟁이가 되어 꼬박꼬박 월급이 주어져도 만족은 없는데 삶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승진도 몇 번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안정된 삶 속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안주하여 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업에 도전하여 밥벌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참된 안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도전하여 창업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된 안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끊임없는 불안이 주어집니다. 3년 전만해도 세계 1위였던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말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편하게 안정된 마음으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참 안정은 성경적으로는 평강(샬롬)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의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참 평강의 삶은 누가 뭐라 해도 안주하는 것에 있습니다. 안주와 도전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주는 좋지 않다는 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인데 안주해야 할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오해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께 안주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땅의 삶을 살 때에 평강이 나타나는데 월급쟁이로 사느냐 창업을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안주되어 있다면 월급쟁이로 살더라도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고 도전해서 창업을 하더라도 불안과 근심이 없습니다. 평강의 관건은 마음이 하늘에서 안주하느냐 땅에 머무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안주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을 깨뜨릴 수백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등장하더라도 평강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이 하늘에 안주하고 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평강하다고 느낄 수백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강은 깨어져 나갈 것인데 오

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샬로모'라고 기록된 솔로몬의 이름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인해서 잉태 된 아기가 죽은 후에 곧 솔로몬이 태어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삼하5:14절에 우리아가 죽은 뒤에 밧세바가 다윗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을 낳게 되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적어도 다윗의 불륜 사건이후로 최소한 50개월은 지난 시점이고, 솔로몬은 죽은 아이까지 포함하여 밧세바가 다섯 번째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을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표현한 이유는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다윗은 이 아이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임을 천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태어난 아이에게 평강의 사람 솔로몬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름을 갖고 살든지 후대에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 아들에게 평강의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은 다윗의 기도를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나라 전체가 참된 안정을 누리길 바라는 기도인 것이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참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선민은 교회라는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각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내 마음을 안주시켜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에 초청 된 자들이고 모두가 여디디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돈 가족 건강 권력 등이 사랑할 만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언제나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돈이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돈에 마음을 줍니다. 애인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도 애인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음을 주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실 것이라고 믿기에 하늘에 마음을 안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고 선택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요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들여 여디디야가 됨으로 하늘에 마음을 안주시키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실제로 사랑의 연합과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의 수도인 랍바의 정복이야기가 솔로몬의 탄생에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랍바를 정복한 것은 우리아가 죽기 전의 전쟁이므로 최소한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와서 덧붙이는 이유는 세상에 안주하는 것과 하나님께 안주하는 것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요압은 대부분의 정복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다윗 왕에게 공로를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마지막까지 정복을 끝낸다면 랍바 성 승리에 자기의 이름이 붙을까 두려워했던 것인데 대단한 충성심인 것이죠. 이후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 차례 있을 뿐이었고 이때에는 이미 다윗이 쇠약해져서 휘하의 장군들이 참전을 말릴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암몬의 랍바를 정복할 시점은 다윗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대외적으로는 이민족을 굴복시켜 영토 확장을 해서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군부의 총사령관 요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진심어린 충성을 바치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장부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여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으로 인해, 다말의 동복오라비 압살롬이 분노하여 이복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전열을 갖추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이 다윗의 랍바 정복 사건을 솔로몬 탄생과 맞추어 기술한 이유는 이 땅에서의 최고로 안정된 상태조차도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지 못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직장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더라도 내게 참된 안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더라도 안정은 없습니다. 지금 성취감에 불타며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도 결코 참 안정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여디디야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평강을 바랄지라도 그 평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아이에게 '평강의 사람이 되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여디디야가 되지 않는 한 평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고 예수님의 자리에 마음을 안주시키는 자만이 여디디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안주하기 위하여 붙잡아야 하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땅에서 안정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에 안주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히시니'라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다른 것은 찾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 기도를 매일 드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안주 할 때에 삶은 월급쟁이로 살든 창업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창의성을 가질 수 있으며, 누구도 깰 수 없는 평강 가운데서 삶은 영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하늘 안주가 이 땅에서 어떤 이유로부터도 평강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리지널한 최초의 여디디야이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을 안주시킴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잘 수 있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